

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관계

GOD'S RELATION TO THE
UNIVERSE

4:0.1 우주 아버지는 우주들의 우주의 물질적, 지적, 그리고 영적 현상들에 대하여, 그가 모든 시간에 두루 이행하는 영원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느님은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주권의지에 따라 우주들을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모든-지혜 그리고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것들을 창조하셨다. 낙원천국 신(神)들과 그들의 최고 동료들을 제외하고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매우 많이 알고 있는 자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지어는 낙원천국의 고귀한 시민들도 신(神)들의 영원한 목적의 본성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견해들을 갖고 있다.

THE Universal Father has an eternal purpose pertaining to the mater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phenomena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which he is executing throughout all time. God created the universes of his own free and sovereign will, and he created them in accordance with his all-wise and eternal purpose. It is doubtful whether anyone except the Paradise Deities and their highest associates really knows very much about the eternal purpose of God. Even the exalted citizens of Paradise hold very diverse opinions about the nature of the eternal purpose of the Deities.

4:0.2 완전한 중앙우주인 하보나를 창조하는 목적이 순수하게 신성한 본성의 만족이었다는 점은 쉽게 추론된다. 하보나는 낙원천국을 향해가는 도중의 시간 순례자들을 위한 최종 학교로서 그리고 다른 모든 우주들을 위한 원형을 창조로서 쓰일 수도 있다; 아무튼, 그러한 천상의 창조는 완전하고 무한한 창조주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It is easy to deduce that the purpose in creating the perfect central universe of Havona was purely the satisfaction of the divine nature. Havona may serve as the pattern creation for all other universes and as the finishing school for the pilgrims of time on their way to Paradise; however, such a supernal creation must exist primarily for the pleasure and satisfaction of the perfect and infinite Creators.

4:0.3 진화하는 필사자들을 완전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이 낙원천국과 최종의

The amazing plan for perfecting evolutionary mortals and, after their

무리단의 달성 후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앞날의 일을 위한 연이은 훈련을 제공하는 놀라운 계획이, 현재로서는, 일곱 초우주들과 그들의 여러 종속부서들의 주요한 일들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을 영성화 시키고 훈련시키는 이 상승 기획은 결코 우주 지능존재들의 유일한 업무는 아니다. 정말로, 시간을 지배하고 천상무리들의 에너지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매혹적인 수많은 다른 일들이 있다.

attainment of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providing further training for some undisclosed future work, does seem to be, at present, one of the chief concern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ir many subdivisions; but this ascension scheme for spiritualizing and training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is by no means the exclusive occupation of the universe intelligences. There are, indeed, many other fascinating pursuits which occupy the time and enlist the energies of the celestial hosts.

1. 아버지의 우주 태도

1. THE UNIVERSE ATTITUDE OF THE FATHER

4:1.1 오랫동안 유란시아의 거주민은 하느님의 섭리를 잘못 알아왔다. 너희 세계에 대한 신성한 작용의 섭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많은 필사자들이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는 유치하고 독단적인 물질적 보살핌이 아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우주 자녀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는, 천상의 존재들과 신성한 영들의 상호 연결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For ages the inhabitants of Urantia have misunderstood the providence of God. There is a providence of divine outworking on your world, but it is not the childish, arbitrary, and material ministry many mortals have conceived it to be. The providence of God consists in the interlocking activities of the celestial beings and the divine spirits who, in accordance with cosmic law, unceasingly labor for the honor of God and for the spiritual advancement of his universe children.

4:1.2 사람과 관계되는 하느님에 대한 너희 개념에서, 우주의 표어가 **진보**인 것을 너희가 깨닫는 그 차원으로 너희는 나아갈 수 없겠는가? 긴 세월 동안 인간 종족은 그 현재 위치에

Can you not advance in your concept of God's dealing with man to that level where you recognize that the watchword of the universe is *progress*? Through long ages the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해 왔다. 이 모든 수천 년 동안 섭리는 진보적인 진화 계획을 수행해 왔다. 실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생각들이 서로 대립되지 않으며, 오직 사람의 잘못된 개념 속에서만 그러하다. 신성한 섭리는,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된 인간적 진보에 대하여 결코 정 반대의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섭리는 최극 입법자의 불변하는 완전한 본성과 항상 일치한다.

4:1.3 “하느님은 신실하시고 “모든 그의 계명은 옳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바로 하늘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말씀은 하늘 안에 언제나 지나 확립되었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모든 세대에 이어지며; 당신이 땅을 지으셨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창조주 이십니다.”

4:1.4 아버지가 자신의 목적을 유지시키고 자기 창조체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세들과 개인성들에는 제한이 없다. “영원한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 아래는 영속하는 방패가 있다.” “지고자의 비밀한 곳에 거하는 그는 천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 것이다.” “보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하여 선함을 이루는 것을 안다,” “이는 주님의 눈이 의로운 자들을 보시고, 그의 귀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human race has struggled to reach its present position. Throughout all these millenniums Providence has been working out the plan of progressive evolution. The two thoughts are not opposed in practice, only in man's mistaken concepts. Divine providence is never arrayed in opposition to true human progress, either temporal or spiritual. Providence is always consistent with the unchanging and perfect nature of the supreme Lawmaker.

"God is faithful" and "all his commandments are just." "His faithfulness is established in the very skies." "Forever, O Lord, your word is settled in heaven. Your faithfulness is to all generations; you have established the earth and it abides." "He is a faithful Creator."

There is no limitation of the forces and personalities which the Father may use to uphold his purpose and sustain his creatures. "The eternal God is our refuge, and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He who dwells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hall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Behold, he who keeps us shall neither slumber nor sleep."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ver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open to their prayers."

때문이다.”

4:1.5 하느님은 “자신의 힘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들이 탄생될 때, 그는 “자기 아들들을 내보내며 그들은 창조된다.” 하느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 하느님은 모든 물질적 물체들과 모든 영적 존재들을 계속해서 지탱하신다. 우주들은 영원히 안정되어 있다. 외견상 불안정한 그 한가운데에 안정성이 있다. 별들의 영역에 있는 에너지 격변과 물리적 변동 한가운데에는 근거(根底)를 이루는 질서와 안전함이 있다.

4:1.6 우주 아버지는 우주들에 대한 관리로부터 물러나신 적이 없다; 그는 활동하지 않는 신(神)이 아니다. 만일 하느님이 모든 창조의 현재 유지자에서 물러난다면, 우주 붕괴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느님이 없으면, **실체**로서 그러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순간에도, 과거의 먼 시대처럼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하느님은 계속 지탱하신다. 신성한 범위는 영원의 순환계 둘레까지 확장된다. 우주는 태엽이 감긴 만큼 작동하다가 기능을 멈추는 그러한 시계처럼 감겨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있다. 아버지는 에너지와 빛과 생명을 끊임없이 쏟아 부으신다. 하느님의 일은 영적일 뿐 아니라 글자 그대로이다. “그는 북쪽을 빈 공간 너머로 힘껏 뻗게 하시고 땅을 무(無)에 매다신다.”

4:1.7 내 계층에 속하는 존재는 궁극적

God upholds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And when new worlds are born, he "sends forth his Sons and they are created." God not only creates, but he "preserves them all." God constantly upholds all things material and all beings spiritual. The universes are eternally stable. There is stability in the midst of apparent instability. There is an underlying order and security in the midst of the energy upheavals and the physical cataclysms of the starry realms.

The Universal Father has not withdrawn from the management of the universes; he is not an inactive Deity. If God should retire as the present upholder of all creation, there would immediately occur a universal collapse. Except for God, there would be no such thing as *reality*. At this very moment, as during the remote ages of the past and in the eternal future, God continues to uphold. The divine reach extends around the circle of eternity. The universe is not wound up like a clock to run just so long and then cease to function; all things are constantly being renewed. The Father unceasingly pours forth energy, light, and life. The work of God is literal as well as spiritual. "He stretches out the north over the empty space and hangs the earth upon nothing."

A being of my order is able to

조화를 발견할 수 있고 우주 관리의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멀리-도달하고 그리고 심오한 합동을 탐지할 수 있다. 필사자 마음에게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내가 납득하기로는 질서 정연하고 구조적이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많은 것들이 우주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지역우주들과 초우주들의 인지된 기세, 에너지, 마음, 모론시아, 영 그리고 개인성들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그리고 다소 정통하다. 나는 어떻게 이들 대리자들과 개인성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납득을 가지고 있으며, 거대우주의 인가받은 영 지능존재들의 하는 일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 우주들의 현상에 대한 나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충분히 알아낼 수 없는 조화우주 반응에 끊임없이 마주치고 있다. 나는 내가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세, 에너지, 지능 그리고 영들의 상호 연합된, 외견상 우연한 협력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일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4:1.8

나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과 무한 영 그리고 크게는 낙원천국 섬의 기능에서 직접 생겨나는 모든 현상의 활동을 추적하고 분석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나의 곤혹스러움은 그들의 신비로운 합동, 세 잠재성의 절대자들의 숨씨처럼 보여 지는 것에 부딪힘으로써 생겨난다. 이 절대자들은 물질을 대체하고 마음을

discover ultimate harmony and to detect far-reaching and profound coordination in the routine affairs of universe administration. Much that seems disjointed and haphazard to the mortal mind appears orderly and constructive to my understanding. But there is very much going on in the universes that I do not fully comprehend. I have long been a student of, and am more or less conversant with, the recognized forces, energies, minds, morontias, spirits, and personalitie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e superuniverses. I have a general understanding of how these agencies and personalities operate, and I am intimately familiar with the workings of the accredited spirit intelligences of the grand universe. Notwithstanding my knowledge of the phenomena of the universes, I am constantly confronted with cosmic reactions which I cannot fully fathom. I am continually encountering apparently fortuitous conspiracies of the interassociation of forces, energies, intellects, and spirits, which I cannot satisfactorily explain.

I am entirely competent to trace out and to analyze the working of all phenomena directly resulting from the functioning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and, to a large extent, the Isle of Paradise. My perplexity is occasioned by encountering what appears to be the performance of their mysterious co-ordinates, the three Absolutes of

초월하며 영을 산출시킨다. 나는
분별불가 절대자와 신(神) 절대자 그리고
우주 절대자의 현존과 행위의 탓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복잡한
활동행위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동하고 종종
혼란을 겪는다.

potentiality. These Absolutes seem to
supersede matter, to transcend mind,
and to supervene spirit. I am
constantly confused and often
perplexed by my inability to
comprehend these complex
transactions which I attribute to the
presences and performance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Deity
Absolute, and the Universal Absolute.

4:1.9 이 절대자들은 우주 안에서 널리,
충분히-계시되지는-않은
현존됨에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물리학자, 철학자들 또는 심지어
종교인들에게까지도, 공간 잠재력
현상 속에서 그리고 다른
초(超)궁극체들의 역할 속에서,
기세, 개념 또는 영의
시원(始原)존재들이, 어떻게 최극
조절 그리고 궁극적 가치들을
포함하는, 한 복합 실체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요구에 대하여, 정확히
응답하는가에 관하여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These Absolutes must be the not-
fully-revealed presences abroad in the
universe which, in the phenomena of
space potency and in the function of
other superultimates, render it
impossible for physicists,
philosophers, or even religionists to
predict with certainty as to just how
the primordials of force, concept, or
spirit will respond to demands made
in a complex reality situation
involving supreme adjustments and
ultimate values.

4:1.10 조화우주의 사건들의 전체 구조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는 또한 유기적
합일체가 있다. 진화하는 최극존재의
이 살아있는 현존, 구체적으로
투사되어진 미완성의
내재성(內在性)은, 겉보기에 관련이
없는 우주 사건들이 놀랄 만큼
우연한 합동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의해, 때때로 불가해하게
현시된다. 이것은 섭리의
기능—최극존재와 공동행위자의

There is also an organic unity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which
seems to underlie the whole fabric of
cosmic events. This living presence of
the evolving Supreme Being, this
Immanence of the Projected
Incomplete, is inexplicably
manifested ever and anon by what
appears to be an amazingly fortuitous
co-ordination of apparently unrelated
universe happenings. This must be the
function of Providence -- the realm of
the Supreme Being and the Conjoint

영역—임이 틀림없다.

4:1.11 나는 변화 많고 이렇게 잡다하고
겉보기에 희망 없이 혼동된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주
활동의 모든 위상과 형식의 합동과
상호-연합에 대한 이 멀리-퍼지고
일반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조정이고, 그러면서 어김없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사람들과
천사들의 행복을 위하여 결과를
이룬다고 믿고 싶다.

4:1.12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조화우주의 외견상 “우연한
현상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절대자들의 영원한 조종 속에서의
무한자의 시간-공간 모형의 유한
드라마의 일부이다.

2. 하느님과 자연

4:2.1 제한된 감각에서 볼 때, 자연계는
하느님의 물리적 성향이다. 하느님의
행위성이나 활동은 지역우주,
별자리, 체계, 또는 행성의 실험
계획들과 진화의 원형들들에 의해
자격이 갖추어지고 일시적으로
변경된다. 하느님은 널리-퍼지는
주(主)우주에 두루 명확하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신다; 그러나 그는 자기
활동의 원형들을, 진화적으로
전개되는 유한한 구체적인 투사들의
지역적 목표, 의도 그리고 계획에
맞추어, 각 우주, 별자리, 체계,
행성, 그리고 개인성의 합동되고

Actor.

I am inclined to believe that it is this
far-flung and generally
unrecognizable control of the co-
ordination and interassociation of all
phases and forms of universe activity
that causes such a variegated and
apparently hopelessly confused
medley of physical, mental, moral,
and spiritual phenomena so unerringly
to work out to the glory of God and
for the good of men and angels.

But in the larger sense the apparent
"accidents" of the cosmos are
undoubtedly a part of the finite drama
of the time-space adventure of the
Infinite in his eternal manipulation of
the Absolutes.

2. GOD AND NATURE

Nature is in a limited sense the
physical habit of God. The conduct,
or action, of God is qualified and
provisionally modified by the
experimental plans and the
evolutionary patterns of a local
universe, a constellation, a system, or
a planet. God acts in accordance with
a well-defined, unchanging,
immutable law throughout the wide-
spreading master universe; but he
modifies the patterns of his action so
as to contribute to the co-ordinate and
balanced conduct of each universe,
constellation, system, planet, and

균형 잡힌 행위성에 기여하도록,
변경한다.

personality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objects, aims, and plans of the
finite projects of evolutionary
unfolding.

4:2.2 그러므로 자연계는, 필사 사람이
그것을 납득하고 있는 것처럼,
변함없는 신(神)의 숨어있는 기초와
기본 배경 그리고, 지역우주와
별자리와 체계와 행성 기세들
그리고 개인들에 의해 시작되어
왔고 수행되고 있는 지역 계획과
목적과 원형들과 그리고 조건들의
활동인, 그 활동에 의하여 변경되고,
그 활동을 통하여 동요를 체험하는,
그의 불변 법칙을 나타내 보인다.
예를 들자면: 하느님의 법칙이
네바돈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것들은
이 지역우주의 창조주 아들과 창조 영에
의해 확립된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며; 이 모든 것 이외에, 이
법칙들의 작용은 너희 행성에
거주하는 그리고 사타니아라는 너희의
직계 행성 체계에 속하는 어떤
존재들의 잘못과 불이행과 반란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아 왔다.

Therefore, nature, as mortal man
understands it, presents the
underlying foundation and
fundamental background of a
changeless Deity and his immutable
laws, modified by, fluctuating
because of, and experiencing
upheavals through, the working of the
local plans, purposes, patterns, and
conditions which have been
inaugurated and are being carried out
by the local universe, constellation,
system, and planetary forces and
personalities. For example: As God's
laws have been ordained in Neadon,
they are modified by the plans
established by the Creator Son and
Creative Spirit of this local universe;
and in addition to all this the
operation of these laws has been
further influenced by the errors,
defaults, and insurrections of certain
beings resident upon your planet and
belonging to your immediate
planetary system of Satania.

4:2.3 자연은 두 가지 조화우주 요소의
시간-공간 결과이다. 즉: 첫째는,
낙원천국 신(神)의 불변함, 완전성
그리고 정당함이며 두 번째는,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가외(加外)-낙원천국
창조체들의, 실험에 의한 계획,
집행상의 실책, 반란을 일으키는
잘못, 발육의 불충분함, 그리고

Nature is a time-space resultant of
two cosmic factors: first, the
immutability, perfection, and
rectitude of Paradise Deity, and
second, the experimental plans,
executive blunders, insurrectionary
errors, incompleteness of
development, and imperfection of
wisdom of the extra-Paradise

지혜의 불완전성이다. 그러므로 자연계는 균일하고 불변이며 장엄하고 굉장한 완전성의 끈을 영원함의 순환계로부터 가져오지만; 각 우주, 각 행성, 그리고 각 개별존재의 삶에 있어서는, 이 자연계는 진화 체계와 우주에 속한 창조체들의 행위, 오류 그리고 불충에 의해 변경되고 자격이 갖추어지며 아마도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계는, 저변은 안정되어 있지만, 항상 변화하는, 게다가 변덕스러운, 분위기에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한 지역우주의 운영과정에 따라 바뀌어져야만 한다.

4:2.4 자연계는 미완성된 우주들의 불충분함, 악 그리고 죄에 의해 나뉘는 낙원천국의 완전성이다. 이 몫은 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둘 모두를,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둘 모두를 그렇게 나타낸다. 계속되는 진화는 낙원천국 완전성의 내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리고 악, 잘못 그리고 상대적 실체의 부조화를 줄임으로써 자연계를 변경한다.

4:2.5 하느님은 자연계 속에 또는 자연계의 기세들 중 어떤 것 속에도 직접 계시지 않는데, 이는 자연계의 현상은 점진적 진화의 불완전성의 초(超)부담(負擔)이며, 때로는 하느님의 우주 법칙인 낙원천국 기초에 대한 반항적인 반란의 결과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란시아와 같은 그러한 세계에 나타날 때, 자연계는 모든-지혜 그리고 무한하신 하느님에

creatures,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Nature therefore carries a uniform, unchanging, majestic, and marvelous thread of perfection from the circle of eternity; but in each universe, on each planet, and in each individual life, this nature is modified, qualified, and perchance marred by the acts, the mistakes, and the disloyalties of the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systems and universes; and therefore must nature ever be of a changing mood, whimsical withal, though stable underneath, and varied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ng procedures of a local universe.

Nature is the perfection of Paradise divided by the incompleteness, evil, and sin of the unfinished universes. This quotient is thus expressive of both the perfect and the partial, of both the eternal and the temporal. Continuing evolution modifies nature by augmenting the content of Paradise perfection and by diminishing the content of the evil, error, and disharmony of relative reality.

God is not personally present in nature or in any of the forces of nature, for the phenomenon of nature is the superimposition of the imperfections of progressive evolution and, sometimes, the consequences of insurrectionary rebellion, upon the Paradise foundations of God's universal law. As it appears on such a world as Urantia, nature can never be the

대한 적절한 표현, 참된 표상,
신실한 묘사가 결코 될 수 없다.

4:2.6 너희 세계에 있어서 자연계는 지역우주의 진화 계획에 의한 완전성의 법칙의 자격조건이다. 어느 한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가득 퍼지게 된 자격을 갖춘 감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주적이고 신성한 힘의 위상이기 때문에, 자연계를 경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자연계는 또한 조화우주 진화 안에서 우주실험의 발육, 성장, 그리고 진보의 미완성되고,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것의 현시이다.

4:2.7 자연 세계의 외견상 결함들이, 하나님의 성격 안에서 그에 대응되는 어떠한 결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관찰된 불완전들은 무한함을 영화처럼 묘사하는 계속-움직이는 필름 상영에서의 불가피한 정지-순간에 불과하다. 물질적 사람의 유한 마음으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성한 실체를 스쳐 지나가며 얼핏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완전성-연속성에 대한 바로 이 결함-중단이다. 신성의 물질적 현시들이 사람의 진화적 마음에는 결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직 필사 사람이 자연계의 현상을 타고난 눈, 시간 세계에서 보완되는 대용품인, 모론시아 모타 혹은 계시의 도움을 얻지 않고, 인간적 시각을 통하여 보기를 계속

adequate expression, the true representation, the faithful portrayal, of an all-wise and infinite God.

Nature, on your world, is a qualification of the laws of perfection by the evolutionary plans of the local universe. What a travesty to worship nature because it is in a limited, qualified sense pervaded by God; because it is a phase of the universal and, therefore, divine power! Nature also is a manifestation of the unfinished, the incomplete, the imperfect outworkings of the development, growth, and progress of a universe experiment in cosmic evolution.

The apparent defects of the natural world are not indicative of any such corresponding defects in the character of God. Rather are such observed imperfections merely the inevitable stop-moments in the exhibition of the ever-moving reel of infinity picturization. It is these very defect-interruptions of perfection-continuity which make it possible for the finite mind of material man to catch a fleeting glimpse of divine reality in time and space. The material manifestations of divinity appear defective to the evolutionary mind of man only because mortal man persists in viewing the phenomena of nature through natural eyes, human vision unaided by morontia mota or by revelation, its compensatory substitute on the worlds of time.

고집하기 때문이다.

4:2.8 그리고 자연계는, 자연계의 일부이면서, 그러면서도 시간 속에서 자연계의 외상(外傷)을 제공해 온 무수한 창조체들의 반란, 잘못된 행위성,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훼손되고,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으며, 그 모습은 시들어 버렸다. 결단코, 자연계는 하느님이 아니다. 자연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And nature is marred, her beautiful face is scarred, her features are seared, by the rebellion, the misconduct, the misthinking of the myriads of creatures who are a part of nature, but who have contributed to her disfigurement in time. No, nature is not God. Nature is not an object of worship.

3. 하느님의 변치 않는 성격

3. GOD'S UNCHANGING CHARACTER

4:3.1 너무 오랫동안 사람은 하느님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 왔다. 하느님은 우주들의 우주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질투하지 않으시고, 그런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럴지 않을 것이다. 창조주 아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성 창조의 대표작이 되게 하려 하였으며, 모든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려고 하였음을 알았기에, 그의 존재가 그들 자신의 속된 욕망에 지배당하는 모습, 나무와 돌과 금과 그리고 이기적인 야망의 우상 앞에 절하는 광경—이러한 더러운 장면들이 하느님과 그의 아들들을 격동시켜서, 사람을 위하여 질투하게 한 것이지, 사람에게 대해서는 결코 아니다.

All too long has man thought of God as one like himself. God is not, never was, and never will be jealous of man or any other being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Knowing that the Creator Son intended man to be the masterpiece of the planetary creation, to be the ruler of all the earth, the sight of his being dominated by his own baser passions, the spectacle of his bowing down before idols of wood, stone, gold, and selfish ambition -- these sordid scenes stir God and his Sons to be jealous for man, but never of him.

4:3.2 영원한 하느님은 이러한 인간 감정들의 감각에서 그리고 사람이 그러한 반응들을 납득하는 것처럼, 분노하거나 화를 낼 수는 없다.

The eternal God is incapable of wrath and anger in the sense of these human emotions and as man understands such reactions. These sentiments are

이러한 감상들은 비열하고
경멸적이며; 그것들은 인간적이라
불릴 가치가 없고, 신성이라고는
더욱 할 수 없으며; 그러한 태도들은
우주 아버지의 완전한 본성과 자비로운
성격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4:3.3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느님 납득에
있어서 갖고 있는 어려움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루시퍼 반란과
칼리가스티아 배신의 멀리-미치는
영향들에 기인한다. 죄에 의해
격리되지 않은 세계들의 경우에는,
진화 종족들이 우주 아버지에 대한
훨씬 더 나은 관념들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그들은 혼돈과 왜곡 그리고
개념의 곡해를 덜 겪는다.

4:3.4 하느님은 전에 했던,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계속 하게 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는
모든-지혜를 갖추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힘을 지니고 계시다. 사람의
지혜는 인간 체험의 시련과
잘못으로부터 자라며; 하느님의
지혜는 그의 무한한 우주 통찰력의
분별불가적 완전성 속에 있고,
그리고 이 신성한 예지가 창조적
자유의지를 효력적으로 지시한다.

4:3.5 우주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슬퍼하거나
후회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밖으로 멀리
퍼져있는 우주들에서, 자신의 창조주
개인성들이 계획하고 그리고 만든
의지 창조체들은, 그들의 불행한
선택에 의해, 때때로 그들의 창조주
부모들의 개인성 안에서 신성한
슬픔의 감정들을 일으킨다. 그러나

mean and despicable; they are hardly
worthy of being called human, much
less divine; and such attitudes are
utterly foreign to the perfect nature
and gracious character of the
Universal Father.

Much, very much, of the difficulty
which Urantia mortals have in
understanding God is due to the far-
reaching consequences of the Lucifer
rebellion and the Caligastia betrayal.
On worlds not segregated by sin, the
evolutionary races are able to
formulate far better ideas of the
Universal Father; they suffer less
from confusion, distortion, and
perversion of concept.

God repents of nothing he has ever
done, now does, or ever will do. He is
all-wise as well as all-powerful.
Man's wisdom grows out of the trials
and errors of human experience;
God's wisdom consists in the
unqualified perfection of his infinite
universe insight, and this divine
foreknowledge effectively directs the
creative free will.

The Universal Father never does
anything that causes subsequent
sorrow or regret, but the will creatures
of the planning and making of his
Creator personalities in the outlying
universes, by their unfortunate
choosing, sometimes occasion
emotions of divine sorrow in the
personalities of their Creator parents.

비록 아버지가 오류를 하지 않고, 후회를 품지도 않고, 슬픔을 체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아버지의 애정을 가진 존재이며, 우주들의 영-달성 계획들 그리고 필사-상승 정책들에 의해 그토록 자유롭게 제공되어 온 도움으로 그들이 다다를 수 있는 영적 차원에 도달하는 데 그의 자녀들이 실패할 때 그의 가슴은 확실히 애통해 하신다.

But though the Father neither makes mistakes, harbors regrets, nor experiences sorrows, he is a being with a father's affection, and his heart is undoubtedly grieved when his children fail to attain the spiritual levels they are capable of reaching with the assistance which has been so freely provided by the spiritual-attainment plans and the mortal-ascension policies of the universes.

4:3.6 아버지의 무한한 선함은 시간의 유한한 마음의 이해력을 초월한다; 따라서 적절한 선의 모든 위상들에 대한 효력적인 표현을 위하여 상대적인 악(죄가 아니라)에 대해 항상 대조될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신성한 선의 완전성은 통찰력의 필사 불완전성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공간 운동의 시간과 물질의 관계에서 그것이 상대적 불완전성과 대조적 연합 속에 있기 때문이다.

The infinite goodness of the Father is beyond the comprehension of the finite mind of time; hence must there always be afforded a contrast with comparative evil (not sin) for the effective exhibition of all phases of relative goodness. Perfection of divine goodness can be discerned by mortal imperfection of insight only because it stands in contrastive association with relative imperfection in the relationships of time and matter in the motions of space.

4:3.7 하느님의 성격은 무한하게 초인간적이며; 따라서 신성의 그러한 본성은, 신성한 아들들 안에서처럼, 그것이 사람의 유한 마음에 의해 신앙-파악될 수 있기 전이라도, 개인성구현 되어야만 한다.

The character of God is infinitely superhuman; therefore must such a nature of divinity be personalized, as in the divine Sons, before it can even be faith-grasped by the finite mind of man.

4. 하느님의 실체화

4. THE REALIZATION OF GOD

4:4.1 하느님만이 전체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정지되고 자아-억제적이며

God is the only stationary, self-contained, and changeless being in the

변함이 없는 존재인데, 밖이 없고 초월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미래도 없다. 하느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에너지(창조 영)이고 절대 의지이며, 이것들은 자존(自存)적이며 보편적이다.

4:4.2 하느님이 자존(自存)이시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으로 자주적이다. 하느님의 바로 그 정체성은 변화와 반대된다. “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불변이다; 그러나 너희가 낙원천국 지위를 성취하기 전에는, 하느님이 어떻게 단순함으로부터 복잡함으로, 일치로부터 변화로, 정지로부터 운동으로, 무한으로부터 유한으로, 신성한 것으로부터 인간으로, 그리고 합일체로부터 이원일체(二元一體) 그리고 삼원일체(三元一體)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조금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신성한 불변함이 부동(不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하느님은 그의 절대에 대한 현시를 그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 하느님은 의지를 갖고 있다—그는 의지이다.

4:4.3 하느님은 절대적 자아-결단의 존재이며; 자아-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우주 반응에 제한이 없고, 그의 자유의지 행위들은 오직 그의 영원한 본성을 선천적으로 특징짓는 신성한 특성본질들과 완전한 속성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최종적 선(善)의 존재로서 더 나아가 창조적 무한함의 한

whole universe of universes, having no outside, no beyond, no past, and no future. God is purposive energy (creative spirit) and absolute will, and these are self-existent and universal.

Since God is self-existent, he is absolutely independent. The very identity of God is inimical to change. "I, the Lord, change not." God is immutable; but not until you achieve Paradise status can you even begin to understand how God can pass from simplicity to complexity, from identity to variation, from quiescence to motion, from infinity to finitude, from the divine to the human, and from unity to duality and triunity. And God can thus modify the manifestations of his absoluteness because divine immutability does not imply immobility; God has will -- he is will.

God is the being of absolute self-determination; there are no limits to his universe reactions save those which are self-imposed, and his freewill acts are conditioned only by those divine qualities and perfect attributes which inherently characterize his eternal nature. Therefore is God related to the universe as the being of final

자유로운 의지로서 우주에
관계하신다.

4:4.4 아버지-절대자는 중앙 그리고 완전한
우주의 창조자이고 다른 모든
창조주들의 아버지이다. 하느님은
개인성, 선(善), 그리고 수많은 다른
특징들을 사람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시지만, 의지의
무한함은 그에게만 있다. 하느님은
그의 창조적 행위들에 있어서 오직
그의 영원한 본성의 감성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의 무한한
지혜의 명령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하느님은 무한히 완전한 것만을 직접
선택하시고, 따라서 중앙우주는
천상의 완전성이다; 창조주 아들들이
자신의 신성, 심지어는 자신의
절대성의 위상들도 전적으로
공유하는 반면, 그것들은 아버지의
의지 무한함을 가리키는 지혜의 그
최종에 의해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미가엘 계층의
아들관계에 있어서, 창조적
자유의지는 더욱 활동적이 되며,
절대는 아니더라도, 전적으로
신성하고 거의 궁극적이다. 아버지는
무한하고 영원하지만, 그의
의지적인 자아-제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의 의지적인
절대성의 바로 이 개념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4:4.5 하느님의 절대성은 우주 실체의 일곱
차원들 전체에 가득 퍼져 있다.
그리고 이 절대 본성 전체는 그의
우주 창조체 가족에 대한 창조주의
관계에 종속된다. 우주들의
우주에서는 정확성이

goodness plus a free will of creative
infinity.

The Father-Absolute is the creator of
the central and perfect universe and
the Father of all other Creators.
Personality, goodness, and numerous
other characteristics, God shares with
man and other beings, but infinity of
will is his alone. God is limited in his
creative acts only by the sentiments of
his eternal nature and by the dictates
of his infinite wisdom. God
personally chooses only that which is
infinitely perfect, hence the supernal
perfection of the central universe; and
while the Creator Sons fully share his
divinity, even phases of his
absoluteness, they are not altogether
limited by that finality of wisdom
which directs the Father's infinity of
will. Hence, in the Michael order of
sonship, creative free will becomes
even more active, wholly divine and
well-nigh ultimate, if not absolute.
The Father is infinite and eternal, but
to deny the possibility of his
volitional self-limitation amounts to a
denial of this very concept of his
volitional absoluteness.

God's absoluteness pervades all seven
levels of universe reality. And the
whole of this absolute nature is
subject to the relationship of the
Creator to his universe creature
family. Precision may characterize

삼위일체로서의 공의(公義)의 특징이 되겠지만, 그러나 시간의 창조체들과 맺는 그의 광대한 가족 관계 전체에 있어서는 우주들의 하느님은 **신성한 감성**에 지배 받는다. 처음과 끝까지—영원히—무한한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다. 그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명칭들 중에, 나는 모든 창조의 하느님을 우주 아버지로 묘사하도록 배워 왔다.

4:4.6 아버지 하느님 안에서 자유의지 행위는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며 지성으로만 인도되지도 않는다; 신성한 개인성은 영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우주에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定意)된다. 그러므로 우주들의 창조체 개인성들에 대한 그의 모든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항상 그리고 계속적인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은 그 단어의 가장 높은 의미에서 아버지이시다. 그는 신성한 사랑의 완전한 이상주의에 의해 영원토록 동기를 부여받으며, 그 부드러운 본성은 사랑함과 사랑 받음 속에서 그것의 가장 강한 표현과 가장 큰 만족을 찾는다.

4:4.7 과학에 있어서, 하느님은 첫째 원인이며; 종교에 있어서는, 보편적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철학에 있어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며, 존재를 위하여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과 그리고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실재라는 실체를 자비롭게 수여한다. 그러나 과학의 첫째 원인

trinitarian justic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but in all his vast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creatures of time the God of universes is governed by *divine sentiment*. First and last -- eternally -- the infinite God is a *Father*. Of all the possible titles by which he might appropriately be known, I have been instructed to portray the God of all creation as the Universal Father.

In God the Father freewill performances are not ruled by power, nor are they guided by intellect alone; the divine personality is defined as consisting in spirit and manifesting himself to the universes as love. Therefore, in all his personal relations with the creature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always and consistently a loving Father. God is a Father in the highest sense of the term. He is eternally motivated by the perfect idealism of divine love, and that tender nature finds its strongest expression and greatest satisfaction in loving and being loved.

In science, God is the First Cause; in religion, the universal and loving Father; in philosophy, the one being who exists by himself, not dependent on any other being for existence but beneficently conferring reality of existence on all things and upon all other beings. But it requires revelation to show that the First Cause of

그리고 철학의 자존적 합일체가 종교의 하느님, 자비와 선이 가득하고 땅 위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생존이 임하도록 보장하는 하느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science and the self-existent Unity of philosophy are the God of religion, full of mercy and goodness and pledged to effect the eternal survival of his children on earth.

4:4.8 우리는 무한자의 개념을 갈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神)에 대한 우리의 최고 개념의 개인성과 그리고 신성 요소들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하느님에 대한 체험-관념을 경배한다.

We crave the concept of the Infinite, but we worship the experience-idea of God, our anywhere and any-time capacity to grasp the personality and divinity factors of our highest concept of Deity.

4:4.9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간 삶에 대한 자각은, 인간적 한계들의 무서운 장면에 직면할 때 각각의 실재의 되풀이되는 에피소드에 감히 도전하는 그 창조체 신앙에서 생겨나는데, 그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 몸 속에,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하게 될, 우주들의 우주 아버지-절대자의 일부가, 살고 있다는 확실한 선언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를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신앙도 정복하는 승리"이다.

The consciousness of a victorious human life on earth is born of that creature faith which dares to challenge each recurring episode of existence when confronted with the awful spectacle of human limitations, by the unfailing declaration: Even if I cannot do this, there lives in me one who can and will do it, a part of the Father-Absolute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that is "the victory which overcomes the world, even your faith."

5.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5. ERRONEOUS IDEAS OF GOD

4:5.1 종교적 전통은 지나간 시대들의 하느님을-아는 사람들의 체험을 불완전하게 보존한 기록이지만, 그러한 기록들은 종교적 삶을 위한 안내자로서 또는 우주 아버지에 관한 참된 정보의 근원으로서는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한 고대의 믿음들은 원시인이 신화를 만드는

Religious tradition is the imperfectly preserved record of the experiences of the God-knowing men of past ages, but such records are untrustworthy as guides for religious living or as the source of true information about the Universal Father. Such ancient beliefs have been invariably altered by the fact that primitive man was a

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의해 늘 변형되어 왔다.

4:5.2 하느님의 본성에 관한 유란시아에서의 가장 큰 혼돈의 근원들 중 하나는, 낙원천국 삼위일체의 개인성들 사이 그리고 낙원천국 신(神)과 지역우주 창조자들 그리고 행정자들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의 성스러운 책들이 실패함으로부터 생겨난다. 부분적으로 납득하는 과거 섭리시대들 동안, 너희의 사제들과 선지자들은 행성영주들, 체계주권자들, 별자리 아버지들, 창조주 아들들, 초우주 통치자들, 최극존재, 그리고 우주 아버지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였다. 생명운반자들 그리고 다양한 천사 계층들과 같은, 종속 개인성들의 메시지들 중 대부분이, 너희 기록들 속에서는, 하느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나타내어 왔다. 유란시아의 종교적 생각은 신(神)의 연합 개인성들과 우주 아버지 자신을 여전히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명칭 속에 포함되어 있다.

4:5.3 유란시아에 속한 민족은 하느님에 대한 원시적 개념들의 영향으로부터 계속 괴로움을 당해오고 있다. 폭풍 속에서 날뛰며 돌아다니는 하느님들; 분노에 차서 땅을 흔들고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때려눕히는; 굶주림과 홍수의 때에 불만의 심판을 내리는—이들은 원시적 종교의 하느님들이다; 그들은 살아서 우주들을 통치하시는 하느님들이 아니다. 그러한 개념들은,

mythmaker.

One of the greatest sources of confusion on Urantia concerning the nature of God grows out of the failure of your sacred books clearly to distinguish between the personalities of the Paradise Trinity and between Paradise Deity and the local universe creators and administrators. During the past dispensations of partial understanding, your priests and prophets failed clearly to differentiate between Planetary Princes, System Sovereigns, Constellation Fathers, Creator Sons, Superuniverse Rulers, the Supreme Being, and the Universal Father. Many of the messages of subordinate personalities, such as Life Carriers and various orders of angels, have been, in your records, presented as coming from God himself. Urantian religious thought still confuses the associate personalities of Deity with the Universal Father himself, so that all are included under one appellation.

The people of Urantia continue to suffer from the influence of primitive concepts of God. The gods who go on a rampage in the storm; who shake the earth in their wrath and strike down men in their anger; who inflict their judgments of displeasure in times of famine and flood -- these are the gods of primitive religion; they are not the Gods who live and rule the universes. Such concepts are a relic of

그러한 허구적 하느님들의
변덕스러움의 안내와 지배 아래에
우주가 놓여 있다고 사람들이
가정하였던 그 시기의 유물이다.
그러나 필사 사람은, 최극 창조주들과
최극 조정자들의 행정적 정책들과
행위성에 관한 한, 자신이
비교되어지는 법칙과 질서의 영역
속에 살아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the times when men supposed that the
universe was under the guidance and
domination of the whims of such
imaginary gods. But mortal man is
beginning to realize that he lives in a
realm of comparative law and order as
far as concerns the administrative
policies and conduct of the Supreme
Creators and the Supreme Controllers.

4:5.4 희생 제물들과 고행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피를 흘림으로,
성난 하느님을 달래고, 감정이 상한
주님의 비위를 맞추고, 신(神)의 은혜를
얻으려는 야만스러운 관념은, 전혀
미숙하고 원시적인 종교를
대표하며, 과학과 진리로 깨우친
시대에 맞지 않는 철학을 대표한다.
그러한 믿음들은 우주들 안에서
봉사하고 다스리는 천상의 존재들과
신성한 통치자들에게는 철저히
혐오감을 주는 것들이다. 그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는 가상적인
신성한 진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죄한 피가 뿌려져야만 된다고
믿거나 고집부리거나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The barbarous idea of appeasing an
angry God, of propitiating an
offended Lord, of winning the favor
of Deity through sacrifices and
penance and even by the shedding of
blood, represents a religion wholly
puerile and primitive, a philosophy
unworthy of an enlightened age of
science and truth. Such beliefs are
utterly repulsive to the celestial
beings and the divine rulers who serve
and reign in the universes. It is an
affront to God to believe, hold, or
teach that innocent blood must be
shed in order to win his favor or to
divert the fictitious divine wrath.

4:5.5 히브리인들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다.
모세가 그의 순진한 베도윈 추종자들의
원시적인 마음들 속에서 인간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을 금지하고
그 대신에 동물을 제례적 희생
제물로 대신하게 하였을 때 뚜렷한
진전을 이루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들은 피를 보지
않고는 달래질 수 없다는 옛날의
이교적 관념으로부터 해방되지

The Hebrews believed that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could be
no remission of sin." They had not
found deliverance from the old and
pagan idea that the Gods could not be
appeased except by the sight of blood,
though Moses did make a distinct
advance when he forbade human
sacrifices and substituted therefor, in
the primitive minds of his childlike
Bedouin followers, the ceremonial

못하였다.

4:5.6 너희 세계에 대한 낙원천국 아들의 증여는 행성 시대를 마감하는 상황 속에 본래 있었으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느님의 은혜를 사기 위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증여는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우주에 대한 체험적 주권을 얻는 긴 모험여행에 있어서 그의 최종적인 몸소 활동이 되게 되어 있었다. 그의 엄격한 아버지로서의 냉담함과 견고한 가슴이 그의 창조체들의 불운과 슬픔에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의 죄 없는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어 가는 것을 보기까지, 그의 부드러운 자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성격에 반하여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4:5.7 그러나 유란시아의 거주민들은 우주 아버지의 본성에 관한 이러한 고대의 잘못들과 이교적 미신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느님에 관한 진리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류는 사람의 아들과 하느님의 아들로써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창조주 아들에 의해 그토록 숭고하게 묘사되었던 성격의 아름다움과 속성들의 사랑스러움으로 우주 아버지를 모두 알도록 운명되어있다.

4:5.8 [유버사의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sacrifice of animals.

The bestowal of a Paradise Son on your world was inherent in the situation of closing a planetary age; it was inescapable, and it was not mad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winning the favor of God. This bestowal also happened to be the final personal act of a Creator Son in the long adventure of earning the experiential sovereignty of his universe. What a travesty upon the infinite character of God! this teaching that his fatherly heart in all its austere coldness and hardness was so untouched by the misfortunes and sorrows of his creatures that his tender mercies were not forthcoming until he saw his blameless Son bleeding and dying upon the cross of Calvary!

But the inhabitants of Urantia are to find deliverance from these ancient errors and pagan superstitions respecting th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The revelation of the truth about God is appearing, and the human race is destined to know the Universal Father in all that beauty of character and loveliness of attributes so magnificently portrayed by the Creator Son who sojourned on Urantia as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